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적극 나선다

2019년 '목포의 맛 원년의 해' 선포... '목포 9미' 적극 활용 맛 지도 제작·음식명인들 찾아가는 설명회 등 대대적 홍보

목포시가 목포 9미(味·세발낙지와 흥어 삼합, 민어회 등 목포를 대표하는 9가지 음식)를 바탕으로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2019년을 '목포의 맛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의 맛'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기 위해 '맛의 도시 목포' 원년의 해 선포식을 갖고 찾아가는 '목포의 맛' 알리기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에서는 목포 9미 등 특산물과 퓨전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개항 122년을 맞아 122인 해물 비빔밥 만들기 및 1897m 해초 김밥 등 이색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또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KTX(SRT) 주요 역사에서 여행 작가와 언론인, 여행사를 초청해 목포 음식 명인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 설명회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목포의 맛' 알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내 먹방 파워 유튜버를 활용한 '목포 맛 보기' 유튜버 영상을 제작해

이를 온·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또 맛 지도 제작, 스토리 북, 다중 집합장소 영상 홍보 판 설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시 관광과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맛의 도시 태스크포스팀(T/F)'도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에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브랜드가 없었다. 목포가 가진 맛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맛의 도시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목포시 관광중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를 위해 '맛있는 목포' 스마트 여행센터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이 사업은 목포의 맛을 알리는 관광 안내 창구를 일원화해 스마트 관광도시를 구축하는 한편 음식 메뉴 상품의 예약에서부



목포시가 2019년을 '목포의 맛'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복합에 집적화된 회 센터.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터 신청·구매·결제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 목포 9미를 비롯한 명인 집과 숨은 맛집 등 관내 대표 음식 콘텐츠 100여개를 탑재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목포시 관광과 관계자는 "목포 9미는 국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을 만큼 경쟁력이 높다"면서 "대한민국 음식 수도 1번지로의 명성에 걸맞게 목포의 음식문화를 알리

는 동시에 뛰어난 맛까지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관광객 등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목포를 찾는 이유로 '특산물이나 먹을거리를 즐기면서 역사·문화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맛보고 싶은 음식으로는 세발낙지와 민어회, 흥어삼합이 꼽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김종식 시장 내달 4~12일 첫 시민과 대화

7개 권역 7일간 소통

소통을 강조해온 김종식(사진) 목포 시장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시민과 소통에 나선다.

목포시는 26일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7일 동안 목포시 관내 23개 동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당시 목포시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매월 1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는 1개 동별로 개최해 150~200명에 가까운 참석 인원을 채우기 위해 '관계동원'이라는 비단을 받았으나 이번 시민과 대화는 단 1명이 참석하더라도 관계동원 없이 희망자 우선으로 개최한다는 게 목포시의 방침이다.

김 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만남은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 생활정치를 통해 시민께 다가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



복해 하는 살맛나는 목포'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변방" 목포를 다시 전남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와 시책을 마련해 '사라지는 지역'이 아니라 '살아나는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서남권 경제 통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도시, 명품관광도시 건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시민과의 소통은 다음달 3일 개원하는 목포시의회 제342회 1차 정례회와 일정이 겹치는 점을 감안해 시간대를 오후 4시로 잡아 목포시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옛 목포세관 창고 문화재 등록 추진

목포시가 구 목포세관 창고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지난 1955년 건립된 구 목포세관 창고는 목포개항(1897년 10월1일)과 동시에 관세 업무를 취급했던 목포해관의 후신이다.

특히 목포세관 창고는 근대항구도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어 주변에 산재한 근대문화재들과 연계할 경우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이 창고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목포세관 창고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는 소유자 동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문화재 등록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목포시는 문화재등록을 전제로 국가기관 간 관리전환(기획재정부→문화재청)후 목포시가 문화재 사용 승인을 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이다.

목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오는 28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를 방문해 협의를 통해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소유주 동의를 거쳐 오는 9월 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1955년 건립된 구 목포세관 창고. 건립 당시 가장 현대적인 세관 창고였으나 지금은 세월의 생채기가 곳곳에 남아있다. 근대 항구도시 출발점을 상징하는 건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부담 덜어준다

한국장학재단과 이자 지원 추진

목포시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협약은 목포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정부와 재단이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시가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8일까지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대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8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목포시청 일자리정책과에서 배부한다. 목포시 홈페이지(공지사향,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연중 태극기 휘날리는 용해동 '눈길'

주민센터 게양 운동 펼쳐

목포지역 한 주민자치센터가 연중 태극기 게양 운동을 펼쳐 국기 사랑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주민공은 용해동 주민자치센터. 용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올 9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관내 상가에 태극기를 무료로 게양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관 주도라 아닌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 주목된다. 현재까지 관내 200여개 상가 중 100여 곳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주민자치위에 따르면 지난 8·15 광복

절 등 국경일에도 갈수록 태극기 게양이 저조해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나라사랑 회복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펼치게 됐다. 또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통일을 염원하는 분위기가 목포에서 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다는 것이 주민자치위의 설명이다.

오을식 자치위원회 총무는 "태극기를 박근혜의 상징으로 여기는 상인들이 의외로 많아 충격을 받았다"면서 "태극의 기운을 받아서 용해동이 밝은 동네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목포시 용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라사랑과 통일 염원이 목포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중 태극기 게양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 (062) 412-2800